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0일 (음력 1월 5일) 화요일

## “광주를 잡아라” 여야, 6당6색 본격 선거 준비

설 연휴가 끝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권 여당과 야권의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에서의 선거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획단을 구성했고, 국민의당에서 갈라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직 준비에 한창이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자존심을 건 진보 맞대결을 준비 중이고, 자유한국당은 복수의 지방의원 배출에 올인하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정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개시돼 120일 간의 선거 레이스에 막이 오르면서 각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지방선거의 밑그림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기획입장을 총괄할 단장에는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오재일(65) 전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또 한선(49)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변원섭(57) 전 참여자치21 대표, 조병남(48) 광주시장 사무차장, 이재홍(43) 광주

민주당, 선거기획단 구성...민평·바른미래 '조직정비'

정의·민중, 진보 맞대결...한국당, 복수 의원 배출 올인

시장 정책미디어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오 단장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 분당한 민주평화당은 지난 12일, 광주에서 제1차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지역위원장을 선임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동남갑 장병완, 서구를 천정배, 북구갑 김경진, 북구를 최경환 의원이 맡았다. 시장위원장은 최경환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은 김경진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이룰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말 또는 3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최경환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1대 1 구도 속에 5개 지지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중 50% 당선율 확보를 목표로 조직 준비와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 분화한 바른미래당도 권은희 의원을 시장위원장으로, 주요 당직자와 상무위원, 운영위원, 상설위원장, 고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갑, 북을 등 지역위원장이 탈당 후 민평당에 합류한 사고지역구 4곳의 위원장 선임도 서두르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 또는 제3의 인물이 광주시장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세부 논의를 거쳐 선대본부 구성과 출진 선수, 조직 정비 등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를 당선시킬 각오로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도 비장한

각오로 선거전에 올인하고 있다. 두당 모두 일제감치 광주시장 후보를 확정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색채로 지지층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정의당은 광주시장과 5개구 기초의원 선거에 최소 1명씩의 후보를 내고, 광역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대신 비례의원 진출을 준비 중이다.

민중당은 당내 논의과정을 거쳐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광역의원 2명, 광역비례 1명,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의 후보를 확정했고, 2차 논의를 통해 출전선수를 3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공약안을 꾸린데 이어 조만간 선대본부도 구성할 예정이다. 당협위원장 8명 중 금명간 시장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이석호 대변인은 “광역의원 1명, 5개 구의회에서 1명씩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당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인지도 있는 인물을 등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추한 말로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이 경기 수원광교산 문화향수의집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18일 고은재단 관계자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해왔던 장소로 이주하겠다고 수원시에 공식적으로 뜻을 전달했다. 시인은 2013년부터 수원시 문화향수의 집(정안구상광고등)에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해왔다.

고은재단 측은 “시인이 지난해 5월 광고산 주민들의 반발(특히 요구를 겪으면서 수원시가 제공한 창작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이주를 준비해 왔다)면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곳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배우들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연극연출가 이은택이 19일 ‘발칙’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 = 뉴스시스



고은

자연인으로 살란다



이은택



시민들

아름다운 퇴장은 뜻밖의 망장... ㅅㅅ

## 세월호 직립 본격화...내일 목포신항 부두 평행이동

육상 거치 317일째...철제빔 설치·안전 보강

선체 육상에 둔채 해상서 대형크레인으로 직립



19일 전남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와 현대상호중공업이 세월호 선체 수평 빔 아래로 모듈트랜스포트 364축을 집어넣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선체는 오는 21일 신항만 부두 쪽으로 옮겨진다. 선조위는 5월까지 'L'자 형태'로 선체 측면 33곳에 철제 수직 빔(beam)을 보강 설치하고 1만급 해상크레인을 이용, 일으켜 세울 방침이다.

목포신항만에 왼쪽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선체가 묶으로 거치된 지 317일째인 오는 21일 부두 쪽으로 평행이동된다.

19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와 직립 용역업체인 현대상호중공업은 이날 목포신항만에서 '세월호

직립 준비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세월호 선체 하부를 받치고 있는 수평빔 아래로 '모듈 트랜스포터 364축(각 30급·5열로 연결)'이 들어갔다.

선수 왼쪽 아래로 3열, 오른쪽 아래로 2열의 모듈 트랜스포터가 설치됐다.

세월호 육상 거치 때 사용했던 모듈 트랜스포터는 130도까지 꺾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운송 장비다. 현대상호중공업은 수평 유지를 위해 트랜스포터와 수평빔 사이로 각종 간설자재(플라스틱 반목·나무 패널 등)를 집어넣었다.

20일에는 트랜스포터로 선체를 옮기기 위한 안전 보강 작업을 벌인다.

선조위는 트랜스포터가 들 수 있는 무게가 1만1000t에 달하는 만큼 평행이동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월호 무게는 약 7500t 가량(현대상호중공업 추산)으로 추정된다.

21일에는 오전 7시30분께 세월호 유가족에게 선체 평행이동 작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연다.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선체를 부두 쪽으로 옮긴다.

현재 부두 안벽과 직각 상태로 놓여 있는 세월호는 선수가 왼쪽으로 선저(밑바닥)는 바다 쪽을 향하게 된다. 해상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부둣가로 옮겨진다.

선체를 육상에 놔둔 채 해상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직립시키는 공법을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평행이동이 추진된다.

선조위와 현대상호중공업은 5월까지 L자 형태로 선체 측면 33곳에 철제 수직 빔을 보강 설치하고 해상크레인을 이용, 일으켜 세울 방침이다.

4월 10일부터 수평빔과 나란히 수직빔이 설치되며, 수평빔 33개 중 일부가 연장된다. 직립용 받침대도 마련된다. 5월 28일에는 영암 현대상호중공업의 1만급 해상크레인(HD-10000호)이 투입된다.

이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14일까지 선체 직립을 마칠 예정이다. 직립 작업 도중 안전통로에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병행된다. 해상크레인과 빔을 연결한 뒤 선체를 들어 올리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직립에는 176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선조위는 기관 구역 정밀 조사, 참사 원인 다각도 검증, 선체 처리 방안의 다양성 확보, 조사관들 안전 확보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을 위해 선체 직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남규 기자

#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ENERGY 4.0**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밀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합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연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상풍력, 심령장문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솔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